Ⅰ. 動向과 展望

1. 國內 金利

○ (動向) 5월 중순 이후 단기 금리는 財政 資金이 방출되면서 안정되고 있으나, 중장기 금리는 設備 資金 需要의 增加, 회사채 발행 물량의 증가 등의 요인에 의해 高水準 유지
○ (展望) 5월 하순 이후 6월 중순까지 시중 금리는 설비 투자 자금 수요 증대, 통화 관리 불안 등에 의해 15% 內外의 高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動向) 5월 중순 이후 단기 금리는 安定勢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장기 금리의 경우 高水準을 유지하고 있음

- 短期 金利인 콜금리는 5월 초순 연장이 기대되던 거액의 RP가 전액 회수되었고, 지준 부족이 확대됨에 따라 14~15%대의 고수준을 유지하였으나, 5월 중순경 財政 資金(교원 급여, 지방 교부금 등)이 방출되어 단기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하락세를 유지 5월 24일 현재 13.00%를 기록하였음
- 中長期 金利인 CD 및 회사채 수익률은 5월 24일 현재 모두 14.95%의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기업들의 設備 投資가 증대되면서 자금 수요가 늘어났고, 회사채 발행 물량도 확대(5월 중순 이후 일평균 600억 원)되었기 때문임

○ (展望) 5월 하순 이후 6월 중순까지 시중 금리는 설비 투자 자금 수요 증대, 통화 관리 불안 등에 의해 15% 內外의 高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景氣 上昇(1/4분기 경제 성장률이 9.9%)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증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추석 자금, 통화 환수 우려 등으로 資金 事情이 惡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3/4분기에 대비하여 기업들이 선거 이전에 자금을 확보하려할 것임
- 6월 회사채 발행 申請 物量은 1조 8,733억 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6.6%가 증가하여 회사채 공급 물량 증대에 의한 금리 상승이 우려됨
- 5월 10일 현재 평잔 기준 총통화 증가율이 17%로 통화 당국의 목표치(2/4분기 17%)에 접근하여 통화 관리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화 관리 불안을 우려한 기업들의 資金 假需要, 금융 기관들의 保守的 資金 運用 등이 예상되어 금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最近 金利 推移>

	95.1말	2말	3말	4말	5/10	5/24
콜금리(%, 1일물)	25.00	17.00	12.50	15.00	14.30	13.00
C D (%, 91일물)	16.54	16.50	14.40	14.70	14.75	14.95
회사채(%, 3년물)	15.20	15.45	14.20	14.70	14.82	14.95

(김 도 균)

2. 원貨 換率

○ (動向)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소폭의 切下勢를 보이다 切上勢로 돌아섰고 엔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꾸준한 切上勢를 보임 ○ (展望)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5월 말에는 輸出 決濟의 集中과 外資流入의 增加로 달러貨의 供給이 增加하면서 切上勢 지속 예상

○ **(動向) 5월 10일 759.9원까지 切上되었던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이후 소폭의 절하세를 보이다 다시 절상세로 돌아섰고 엔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꾸준한 절상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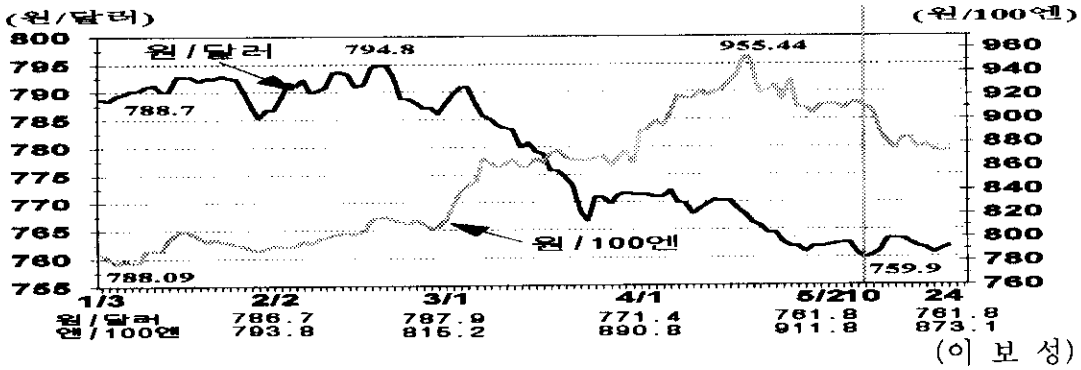
-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5월 10일 40개월만에 처음으로 750원대를 기록한 후 763원대까지 소폭 절하되기도 하였으나 중순 이후 다시 절상세로 돌아섬
  · 5월 10일 759.9원 → 5월 15일 763.3원 → 5월 25일 760.3원
- 엔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900원대 아래로 하락 후 지속적인 절상세를 보임
  · 5월 10일 910.6원→ 5월12일 889.3원→ 5월 16일 874.8원→ 5월 25일 872.2원

○ **(原因)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의 소폭 절하세는 원貨의 급격한 절상을 우려한 外換 當局의 介入과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등에 기인함**

- 그러나 월말로 갈수록 수출 결제에 따른 달러貨 공급의 증가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원貨 절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 절상세로 반전됨
- 엔貨에 대한 원貨 換率의 절상세는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엔화 약세에 기인

○ **(展望) 5월 말까지 달러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切上勢를 지속할 것임**

- 外國人 株式投資限度 擴大(12%→15%, 7월1일부터)와 商業借款의 許容에 따른 외화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절상세는 연말까지 지속 전망(연말 750~755원)
- 短期的으로는 月末로 갈수록 輸出 決濟가 集中되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유입이 확대되어 달러貨 供給이 增加, 절상세 지속 전망 (5월말 757~760원)
  · 그러나 최근 換率政策의 초점을 '物價安定'보다는 '國際收支 防禦'에 두려는 외환당국의 개입이 있을 경우 760~764원 사이에서 橫步할 가능성도 존재
- 엔貨에 대한 원貨 換率은 엔貨의 달러貨에 대한 換率이 안정되고 원貨의 달러貨에 대한 換率은 切上이 예상, 切上勢를 지속할 전망 (5월말 860~870원)



(이 보 성)

3. 株價

○ (動向) 투자 심리의 냉각으로 인한 관망세가 극심한 去來 부진으로 이어져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 (展望) 지속적인 場勢 好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추가 하락시 證安 基金의 개입으로 일시적인 반등은 기대되지만 불투명한 證市 展望에 따른 투자 심리의 위축과 證市 內部의 需給 構造 惡化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動向) 供給 物量 縮小 方針과 證安 基金의 증시 개입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는 연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5월 24일 현재 848.68P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증시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은 증안 기금의 관망에 따른 일반 자금의 증시 이탈과 기관 및 외국인의 순매도물량 증가 등 수급 구조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의 罷業 事態 등 증시 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쳤기 때문임
- 顧客預託金 2조 원 대가 붕괴되는 등 증시 주변 자금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기관의 매수세도 약화되었음. 또한 현대자동차 休業 및 한국통신의 罷業 위기 등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등 주가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음

○ (展望) 市場 需給 與件이 好轉되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의 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5월말에 유상 납입 1천 3백억 원, 기업 공개 3백 19억 원, 회사채 만기 1천 5백억 원 등의 공급 물량이 예상되나 銀行 支準 마감, 소득세 납입 등 월말 자금 수요, 지자제 선거 임박에 따른 資金 梗塞 등으로 수요 부문이 위축되어 주가지수는 830P 대까지 밀릴 것으로 보임
- 증안 기금의 시장 개입은 場勢 好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주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證安 基金의 자금 규모는 8천억 원의 通安債와 3천4백억 원의 短期 資金 등 총 1조1천억 원 선으로 추정됨
  - 그러나, 1일 매수 규모는 하루 거래 대금의 5%인 1백5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주식 시장의 주요 지표>

구 분	4월 29일	5월 10일	5월 20일	5월 24일
종합 주가 지수	897.00	891.87	875.68	848.68
고객 예탁금(억원)	21,533	21,794	20,160	19,865
회사채 수익률(%)	14.70	14.82	14.89	14.95
對美 달러 엔貨 환율	84.25	83.45	86.80	87.25

(백 홍 기)

4. 國際 金利

○ (動向) 美·日·獨의 短期 金利는 소폭의 변동후 保合勢, 美國과 日本의 長期 金利는 下落勢를 나타내었음
○ (原因) 美國 長期 金利는 물가 안정 기대 심리로, 日本은 경제 성장 둔화 예상과 도매 물가 하락 등으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였음
○ (展望) 6월 초순까지 美國 長·短期 金利는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日本과 獨逸 長·短期 金利는 弱保合勢가 예상됨

○ (動向) 美·日·獨의 단기 금리는 소폭의 변동후 保合勢,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는 下落勢를 나타내었음
- 리보 달러 금리와 리보 마르크 금리는 각각 6.13% 및 4.56%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리보 엔 금리는 1.38%대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 미국 國債(30 년) 收益率은 7.0%에서 6.9%대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일본 國債(10 년) 收益率은 4월말 3.41%에서 최근 3.1%대로 하락하였음

○ (原因) 各國 巨視 經濟 統計 指標 등을 중심으로 한 景氣 豫測에 基因함
- 미국 장기 금리는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기인한 물가 안정 기대 심리로 채권 수요가 증가하여 하락세를 나타내었음
- 일본과 독일의 4월 도매 물가 하락(전월대비 일본은 -0.8%, 독일은 -0.1%)과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화에 대한 전반적 약세 등으로 독일 단기 금리는 보합세, 일본 장기 금리는 약보합세를 보였음

○ (展望) 6월 초순까지 美 長·短期 金利의 保合勢, 日·獨의 長·短期 金利 弱保合勢가 豫想됨
- 미국 금리는 미국 경기의 안정적 후퇴 조짐으로 安定勢를 유지하면서 단기 금리는 6.1%대, 장기 금리는 6.9%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올 상반기까지는 독일 정책 금리는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독일 및 일본의 물가와 환율 시장의 안정 그리고 양국의 기대치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일본과 독일의 장·단기 금리는 현 수준에서 弱保合勢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김 찬 진)

<美國,日本,獨逸의 長·短期 金利 推移>

		95.1末	95.2末	95.3末	95.4末	95.5.11	95.5.24
短期國際金利	리보 달러 (3 個月)	6.313	6.250	6.250	6.188	6.063	6.125
	리보 엔 (3 個月)	2.313	2.313	2.875	1.438	1.375	1.375
	리보마르크 (3 個月)	5.063	5.125	4.750	4.563	4.563	4.5117

		95.4末	95.5.11	95.5.17	95.5.24
長期國際金利	美國國債 (30 年)	7.34	7.00	6.860	6.87
	日本國債 (10 年)	3.41	3.295	3.320	3.090

5. 國際 換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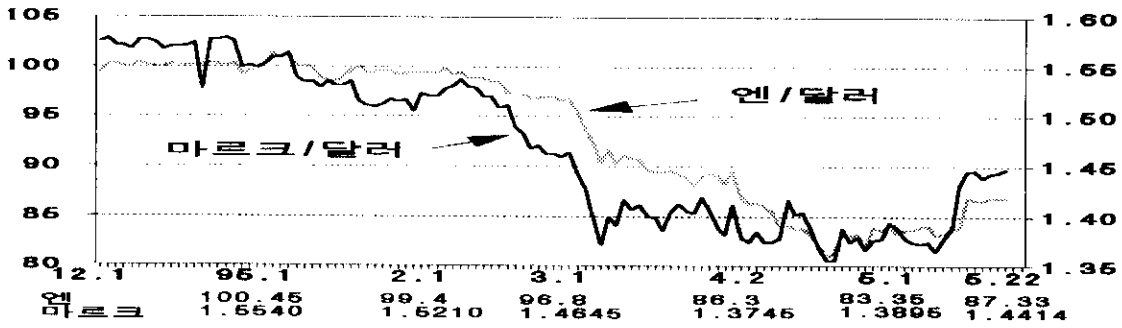
○ (動向) 美 달러貨 價値, 4월 중순 이후의 완만한 切上勢 지속
○ (展望) 短期的으로 달러貨 換率은 現水準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豫想

○ (動向) 5月 11日까지 각각 83엔 및 1.37마르크 臺이던 미 달러화 換率은 최근 86엔 및 1.44마르크 臺에서 등락을 거듭중

- 엔/달러 환율은 5월 23일 현재 87.3엔으로 5월초(83.35엔)대비 4.7% 상승
- 마르크/달러 환율은 同日 1.4414마르크로 5월초(1.3895마르크)대비 3.7% 상승

○ (原因) 달러화 가치 切上은 미국의 對日 무역 제재와 미국 재정 적자 감축안이 예산위원회를 통과한데 기인함. 마르크화의 對美 달러 切下勢는 독일의 金利 引下 가능성과 유럽에서의 마르크화 安定勢에 기인

- 미국이 對日 고급 승용차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수입 감소로 인한 대일 무역 수지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음
  · 달러화 약세의 한 요인인 미 재정 적자의 감축안이 예산위원회를 통과하여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기대감도 확산되었음
- 독일은 4월중 도매물가 하락(전월 대비 -0.1%) 및 1/4분기중 총유동성 공급 감소(전년 4/4분기 대비 -1.8%) 등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 유럽 각국의 政情 不安 퇴조에 따른 마르크화 약세 분위기 등이 미 달러화에 대한 절하 요인으로 작용

○ (展望) 美 달러화 價値는 短期的으로 84~87 엔臺 및 1.40~1.50 마르크臺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豫想됨

- 엔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6월말에 있을 G-7 회담때까지 미·일간 무역 분규에 대한 관망세로 84~87엔臺, 마르크화 대비 달러화 가치는 독일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및 유럽통화제도의 안정세에 기인하여 現水準 유지 혹은 완만한 切上勢가 豫想됨
- 長期的으로는 달러화 약세에 의한 미국의 무역수지 호전, 엔고에 의한 일본의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달러화 가치의 완만한 切上勢 展望 (이 준 호)